

제 2 차 토론회 : 카오스의 국제질서와 글로벌 리더십

의제

글로벌 리더십의 실패를 보여준 미중의 향후 전략은 무엇인가  
국제리더십의 실패, 공백 상태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어떤 국제협조를 구축할 것인가  
미중대립의 시대를 헤쳐나갈 한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주최 국회의원 이광재,국회입법조사처, 재단법인 여시재, 매일경제신문

일시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00분-12시 30분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프로그램(안)

10:00 - 10:05	국민의례	사회자
	사회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0:05 - 10:10	개회사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10:10 - 10:15	환영사	염재호 여시재 이사(전 고려대 총장)
10:15-10:25	축사	국회의원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은혜(미래통합당)
10:25 - 10:30	사진촬영	
	좌장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장(전 유엔사무차장)
10:30 - 10:50	발제 1	미국 관점에서 바라본 미중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0:50 - 11:10	발제 2	중국 관점에서 바라본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11:10 - 11:20	토론자 1	황세희 여시재 미래디자인실장
11:20 - 11:30	토론자 2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1:30 - 12:30	자유토론	
12:30	폐회	

# 미중 기술 패권 경쟁(미국 관점)과 한국의 전략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0.7.28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배경

미국의 대중 기술 견제 전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망

한국의 전략

## ➤ 미국은 왜 그리고 언제부터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시작했는가

### ▪ 2015년 중국정부의 '中国制造2025'

-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기위한 30년 장기 혁신 계획, 중국제조 2025는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한 30년의 장기 비전 중 첫 번째 단계
- 자주창신,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
- 10대 핵심산업 23개 부문 선정,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 부문에 정부 보조금 투자 등 10년 동안 총 3000억 달러 지원

### • 2014년 중국의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國家集成電路產業投資基金)'설립

- 본격적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메모리 및 파운드리 육성 핵심
- 중국 재정부, 금융기관, 대형 국유기업 등이 공동 출자하여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기금 1기 펀드가 조성, 2019년까지 80개 프로젝트, 55개 반도체 관련사에 투자, 2019년에는 약 290억 달러 규모의 2기 펀드 조성



# 미국의 중국 기술 굴기 견제 배경

- 2015년을 전후로 미국내에서 중국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분위기 형성 (ex. 칭화유니의 마이크론 인수 실패)
-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취임 후 보다 다양한 수단을 통한 중국 기술 굴기 견제 본격화
  -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개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비관세장벽) 및 첨단기술 분야 지원(정부 보조금)에 대한 우려 확산
  -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이나 불법적 기술 유출을 통해 중국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국 첨단 산업에 위협적이고 경제적 침략(economic aggression)인 동시에 군사적 위협(military threat)이라는 인식 형성(USTR 2018, White House 2018)

# 미국의 중국 기술 굴기 견제 배경

- 미국의 중국 기술혁신 수준 평가 변화

- 정부, 의회 등 (NSF, USCC 등), 싱크탱크(Brookings, CSIS, ITIF 등), 대학 등
- 정부 자료와 싱크탱크 등의 자료를 통해 미국의 중국 기술혁신 수준에 대한 평가를 정리해 보면
- 중국의 빠른 기술혁신 역량 증가 인정, 이것이 위협적일 수 있다고 인식, 중국은 논문이나 특허 등 연구개발활동의 양적인 성과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음, 이는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인력 투입, 정부의 自主創新을 위한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의 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음, 중국이 인공지능, 고성능컴퓨터 등 몇몇 분야에서 이미 질적으로 미국을 능가하였고 혁신 역량을 갖춘 국가라는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중국의 성취는 모방적인 것이고 외국기술이 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에 토대한 것으로 진정으로 혁신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창의적이고 최상급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을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주장 제기

# 중국 기술혁신 수준 평가

- "Why China Can't Innovate." *Harvard Business Review*. 2014

"Certainly, China has shown innovation through creative adaptation in recent decades, and it now has the capacity to do much more. **But can China lead?** Will the Chinese state have the wisdom to lighten up and the patience to allow the full emergence of what Schumpeter called the true spirit of entrepreneurship? **On this we have our doubts.** The problem, we think, is not the innovative or intellectual capacity of the Chinese people, which is boundless, but **the political world in which their schools, universities, and businesses need to operate,** which is very much bounded."

# 중국 기술혁신 수준 평가

- Is China Catching Up to the United States in Innovation? 2019. ITIF

“ The historical evidence suggests that for an economy to successfully master the final stage of innovation and become an economy that can develop first-to-the world innovation it must shift the role of the state from a director to an enabler. For non-communist nations like Japan, Korea, Singapore, and Taiwan, this was not easy, but it was accomplished. It’s not clear that China will be able to take that step, at least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till at the helm. But even if China cannot make the political changes needed to shift the role of the state this way, China can make an enormous progress, includ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industries. And that progress will significantly harm global innovation leaders (firms and nations)”

- 신기술, 선도산업(Leading Sector)과 패권경쟁에 대한 이론적 관점  
 장주기 이론(모델스키): 기존경제체제의 위기, 혁신 가속화, 선도산업(leading sector) 부상, **신기술에 기반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세계정치권력 변환이 진행된다고 봄**, 현재 4차산업혁명관련 5G, 반도체, 인공지능 부문 등이 새로운 선도부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부문에 미중 기술패권경쟁 집중

〈표 1〉 콘트라티에프 주기(K-wave), 선도 산업, 세계정치의 변화

K-wave	시기	선도산업	세계정치 변화
1st	1780~1840년	면직물, 증기기관	나폴레옹전쟁, 신성동맹
2nd	1840~1890년	철도, 철강	크림전쟁, 독일통일, 미국 남북전쟁
3rd	1890~1940년	전기, 무기화학	제1, 2차 세계대전
4th	1940~1980년	자동차, 석유화학	미소 냉전
5th	1980~2020년	전자, 개인용컴퓨터, 인터넷	소련붕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6th	2020~????	바이오, 청정에너지, 차세대정보통신	

출처: Acaev and Pantin(2014). Wilenius and Kurki(2012) 등 참조.

표 3.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투자 관련 규제 사례

➤ 미국은 어떻게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있는가

•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규제

• 미국 재무부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 (CFIUS)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출처: KIEP 2000

CFIUS 절차에 따른 M&A 규제					
규제 유형	시기	인수 기업(중국)	피인수 기업(미국)	관련 분야	규제 사유
대통령 인수 금지 및 투자 철회 명령	2017. 9	Canyon Bridge Capital (중국계 사모펀드)	Lattice Corp	반도체	- 첨단기술 유출, 지적권 보호
	2018. 3	Broadcom(싱가포르)	Qualcom	반도체, 5G	- 중국의 5G 기술 지배력 확대 우려
	2020. 3	Beijing Shiji Information Technology	StayNTouch	소프트웨어	-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우려
투자거래 당사자 인수 포기	2017. 7	HNA 그룹	Global Eagle Entertainment	인터넷 서비스	- 와이파이 사용자 정보 보호
	2017. 11	Orient Hontai Capital	AppLovin Corp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 기업 정보 유출
	2018. 1	Ant Financial	Moneygram	온라인 금융서비스 (디지털 송금 결제)	- 개인정보 유출
	2018. 2	Hubei Xinyan Equity Investment Partnership	Xcerra	반도체, 전자	-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우려
	2018. 3	CNHTC(中國重汽)	UQM Technologies	전기자동차	- 기술 유출 우려
	2018. 4	HNA Capital	SkyBridge Capital	금융서비스 (헤지펀드)	- 민감 기술 및 정보 접근, 데이터 보호
	2019. 4	iCarbonX	PatientsLikeMe	의료 관련 앱	- 개인정보 유출
	2019. 5	Beijing Kunlun Tech	Grindr	소셜커뮤니티 (온라인 데이팅)	- 미국 시민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외국인 접근 우려

# 미국의 중국 기술 굴기 견제 과정

-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거래제한 ( Entity List)**
  - 법적 근거, 수출통제개혁법(ECRA)
  - 특히 신흥, 기초기반 기술(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 규제에 초점
- 2018년 하반기 부터 중국 푸젠진화(반도체), 화웨이 본사 및 관련 기업 114개사 (5G), Hikvision, iFLYTEK, SenseTime (인공지능) 등 과의 거래 제한 발표
-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견재하자 2020년 5월 거래 제한 규정 강화** (기존에 예외였던 미국 소프트웨어나 기술의 25% 이하를 사용하는 외국기업들도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화웨이의 휴대폰 칩을 제조하는 대만 TSMC 조준, 9월 부터 발표시 화웨이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

## ➤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 중국의 대응

- 이제까지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 동시에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고려
  - 중국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압박,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不可靠实体清单)'을 지정할 계획을 공표
  -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애플, 퀄컴, 보잉, 시스코** 등. 중국 정부는 이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하거나 사이버 안보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거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압박
- ### ▪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장정(新的长征)' 전략으로** 대응
- 2020년 5월 개최된 양회에서 5G,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등 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建设)** 관련 약 5300억 규모 대대적인 기술 투자 계획 발표



#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전망

- 미국의 대응

- 미국 정부의 제조기반 확충 및 기초과학 리더십 지원

- 미국 첨단 업체들의 시장 축소에 대한 반발, 국내 제조업 기반 확충 지원

- 초당적 법안, 'Chips for America Act' 발의 통과

- 미국의 기초과학 우위 유지를 위해 NSF 현재 예산 80억불을 350억불로 파격적으로 증액하는 'The Endless Frontier Act' 발의

; 중국의 기술혁신을 저지하고 견제하는데 주력했던 것에서 초점을 미국 기초과학 역량강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추는 의미

- 미국의 기술동맹 구상

- 중국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을 발표

- 특히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국의 기술혁신 역량 급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혁신기반 동맹(Alliance Innovation Base 등) 형성에 대한 논의 등장, 일종의 대 중국 봉쇄(Containment) 전략?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망

- 누가 현재 강력한 대중 기술 견제 조치들을 주도하고 있는가?
- 미국 정부부처간, 공화 민주 양당간의 대중 견제 입장 차이 두드러지지 않음
- 미국 내부에서 전통적으로 국무부와 재무부는 자유주의 전통을 옹호하며 상무성의 보호무역 성향 견제해 옴, 그러나 현재 이러한 견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
- 미국 공화당은 자유시장원리, 민주당의 국가 개입 옹호, 현재 이러한 구분도 작동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대중 견제, 이민법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반도체업체(SIA), 실리콘 밸리기업들의 조심스러운 로비 진행, 미국이 세계정치경제의 장에서 자유주의 정치경제질서라는 공공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학계 등의 주장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11월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 기술 굴기 견제의 톤이 다소 약화될 수 있고 협상의 공간이 열릴 수 있으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기본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망

- 미국의 대중 기술 견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은 과연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을 수 있는가 (반도체 부문 사례)
-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압도적인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측, 반도체 부문에서 현재 중국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
- 그러나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절반에 육박하는 중국 국내 시장 수요를 감안하고 중국 정부와 기업의 국산화 의지 및 투자 여력을 고려할 때 중국의 반도체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을 포기할 이유는 없음. 실제 현재 과잉투자를 우려할 정도의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 중
- 중국의 반도체 산업 관련 기술이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
- 반도체 관련 인력풀이 국내외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미국 반도체 업체 중국인 인력 다수)
- 정부의 강력한 기술혁신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혁신의 시간은 중국편이라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자국의 혁신역량의 우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 중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망

- 100여 년 전 영국과 독일은 화학, 전신, 철강 등 신기술 부문에서 미국보다 우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산업과 생산방식, American System of Manufacturing 이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토대 마련, 제 2차 세계 대전 전후로 미국 기술의 우위 드러나기 시작
- 당시 미국은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발명가와 기업가의 도전과 혁신,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지원 정책이 어우러져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국가
- 현재 반도체, 5G, 인공지능 부문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중국 역시 방대한 인구 및 자원, 역동적인 시장, 경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혁신적인 기업가군의 도전, 그리고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두드러지기 때문
- 이러한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 중국이 넘어야 할 내적 외적 도전들이 산적. 현재 미국과의 무역 및 기술 갈등은 중국에게 큰 도전으로 작용
- 중국이 이러한 도전들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기술혁신과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미국이 1980년대 초반 소위 IT 신경제 부상으로 활력을 되찾고 패권을 유지해 온 것과 같이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경제적 활기를 되찾고 다시 한 번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주목하되, 기술 자체가 패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기술경쟁 이면과 그 이후의 미중 패권 경쟁을 조금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망

- Decoupling of GVC,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촘촘이 얽혀있는 글로벌 생산 혹은 기술혁신 네트워크가 말끔하게 나뉠 수 있을까?
- 미중 무역마찰이 진행된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수입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각각 상대국과의 수입 수출이 감소한 반면 전체 수출입 규모는 그대로 유지, 미중 각각에서 무역 전환효과, 완충지대에 한국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생산의 분리는 완벽하게 양분되는 형태라기보다는 완충지대를 두고 진행 중
- 코로나19로 생필품이나 전략물자에 대한 상대국 의존을 줄이는 리쇼어링은 미중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 양국이 완전히 분리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됨
- 수십년 동안에 걸쳐 형성되어온 현재의 글로벌 밸류체인과 자유무역질서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중국이었고 미국과 중국은 깊숙한 상호의존관계를 맺어 옴.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계 경제와 많은 국가들에게 엄청난 비용과 선택을 요구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망

- **Decoupling of Global Innovation System**, Techno-Nationalism, Cold Tech War 등등
  - 글로벌 혁신체제와 인적자원의 분리?
  - 이제까지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한 수준에서 동일한 비전과 아키텍처,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전제로 논의되었음에 반해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진행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주목이 요청
  -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밸류체인은 물론 인터넷 마저도 분리될 가능성(스플린터넷, Splinternet)이 제기
  - 미중 양국은 물론 전세계에 많은 비용과 선택의 문제가 야기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망

- 코로나이후 사회적 격리 속에서 비대면 IT 부문의 급성장,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예측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플랫폼과 산업에서 미중 분리(Decoupling) 강화될 것
  -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 인력 유출에 미국이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것 (코로나 사태 양국 언론인 추방, 미국내 중국 출신 연구자들에 대한 보안 조치 강화 등)
  - 미국의 제조업 부활 프로젝트 논의 강화될 듯, 중국의 수출 시장 축소
  - 양측의 경제성장 축소가 기술혁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혁신의 겨울 (Innovation Winter)의 도래??
- ; 양국의 전략적 경쟁 심화로 기술 패권 경쟁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망

-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및 Cold War 1.5의 등장 속에서 기술 협력 논의하기 쉽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
- 기후변화, 전염병, 데이터 등 부문에서 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위험 증대, 초국가적 위험의 관리를 위한 지구적 협력, 특히 미중의 협력이 중요
- 양국의 적대적인 상호인식과 이로 인한 무역 기술 경쟁이 이미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어떻게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
  - 양국 기업 차원의 협력, 빌게이츠와 마윈의 상대국 지원 사례?
  - 제 3국이 다자기구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 기회 마련? 한국 싱가포르 유럽 공동전선
  - 미국내 중국인 연구자들의 중요성, 중국의 미국 시장 중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 증대 등등
  - 21세기 전반부 동안 미중 패권경쟁이 진행될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이나 세계경제를 위해 최선의 길은 미중 기술 갈등이 보편적 원칙이나 규범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구축되어온 GVC 안에서 양대 수혜자임을 인식하도록 지원**



#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압력을 받는 상황,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록 선택의 공간이 좁혀질 수 밖에 없음
- 한국과 EU와 같이 중국, 미국과 동시에 연결된 GVC 안에 놓여진 국가에게 고통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수반하는 선택
- 24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평균 중국수출비중이 24% 임에 비해 미국 수출 비중은 12%이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 중국 측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구축해 온 안보 협력, 보편화된 자유민주주의 이념 등을 고려하면 선택이 복잡
- 유럽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 ? 홍콩보안법, 영국, 화웨이
- 일본 역시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며 미국측에 설 것 ? 인도? 아세안 ?
- 한국은 ?

#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 독일의 한 싱크탱크는 중국의 기술 굴기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측, 다른 한편 중국의 반도체 기술 굴기 지연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평가도 있음
- **확실한 것은 미중 기술 경쟁 심화로 한국 정치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역량 제고 요청**
- 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반도체 이후? 소부장 부문)
- 현재 경제 주요 강국들 가운데 제조업 기반을 갖춘 드문 상황, 최고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필요
- 향후 한국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은 기존의 비용, 효율 등의 경제적 요소 중심에서 정치외교적, 보건 안보,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짜야 하는 상황

#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 미중 경쟁으로 압박을 받는 동류국(Like-minded Country)들과 협력 강화
  - 한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독일 등등
  - 중견국외교의 확장
-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
  - 한국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발전에서 가장 적절한 협력 파트너
- 미중 경쟁, 4차산업혁명, 환경과 보건안보 등의 급속한 변화 시기 한국의 국가 대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모색 필요
  - 우리가 추구할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미중경쟁의 파고를 넘어야
  - 우리는 어떤 국가이고 싶은가, 우리는 어떤 국가이어야 하는가?
  - 정치 안보 통일 경제 환경 보건 문화 기술 여성 등을 아우르는 국가 대전략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의 미래  
2020.7.28

#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성균중국연구소

## 세계질서의 변화

# 코로나 19와 세계질서의 변화

##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기

- 대봉쇄(Great Lock-down)
- 대공황(Great Depression)
- 대침체(Great Recession)
- 대혼란(Great Disruption): The Old is Dead, the New Can't be Born

바이러스 자체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 경제위기의 경로 = L, U, W (WWW)  
바이러스=전쟁의 대상

### 궤위(*interregnum*)의 시대

흔들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단극체제 해체, 안보자율성 증대

글로벌 가치사슬체계의 탈궤: 가치사슬 주기의 단축과 지역화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규칙, 규범 기반 ⇒ 힘, 협상 기반

새로운 유형의 세력전이: 미국 스스로 자신이 구축한 질서 파괴

### 추세

지정학의 회귀

강대국 정치의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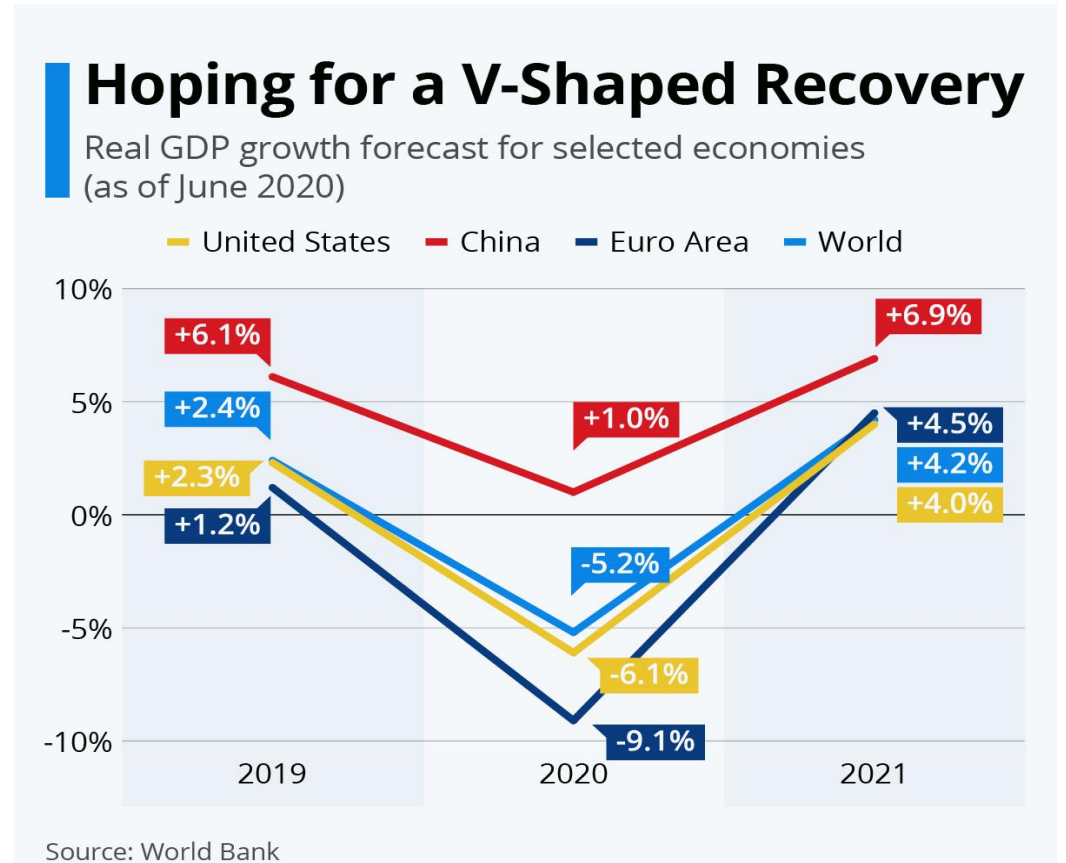
G7, G20, G2, G0, -G2

키신저질서의 몰락, 문명의 충돌

# 회복력(Resilience)이 경쟁력

## 양신일중(兩新一重)건설 (중국전인대 13기 3차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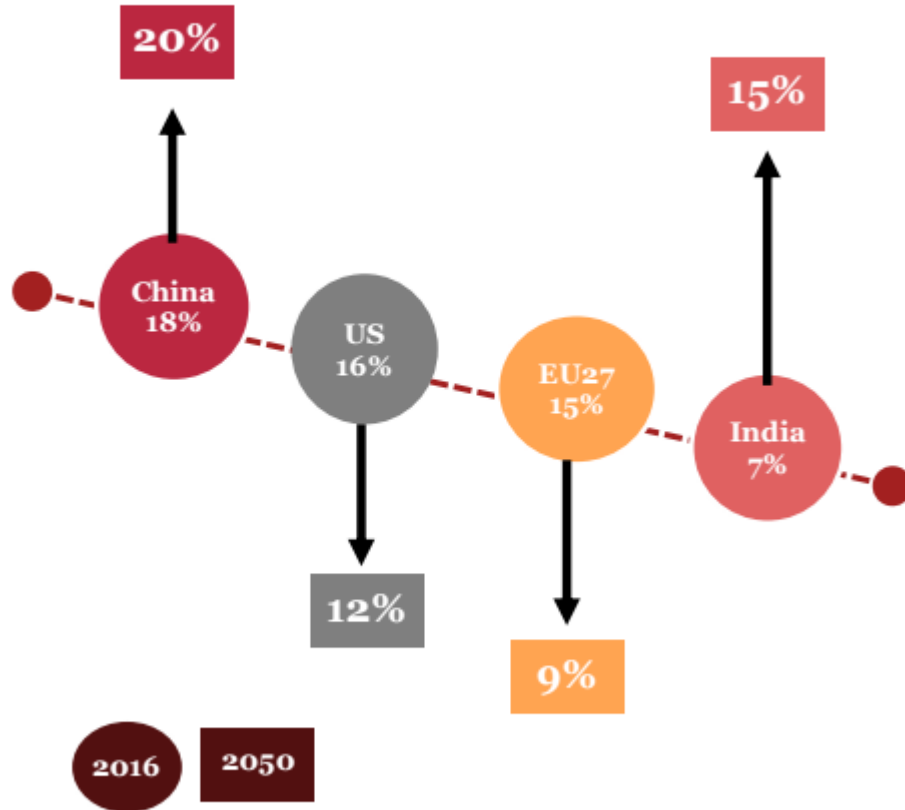
- 1) 신형 인프라: 비대면 경제
- 2) 신형도시화(판자촌 개조 등 도시환경) 건설
- 3) 중대형 토목공사(교통, 수리 등)  
경기부양+ 효율성 제고 +시스템 수출



출처 <https://www.statista.com/chart/21399/gdp-growth-forecast-for-selected-economies/>

# 세계경제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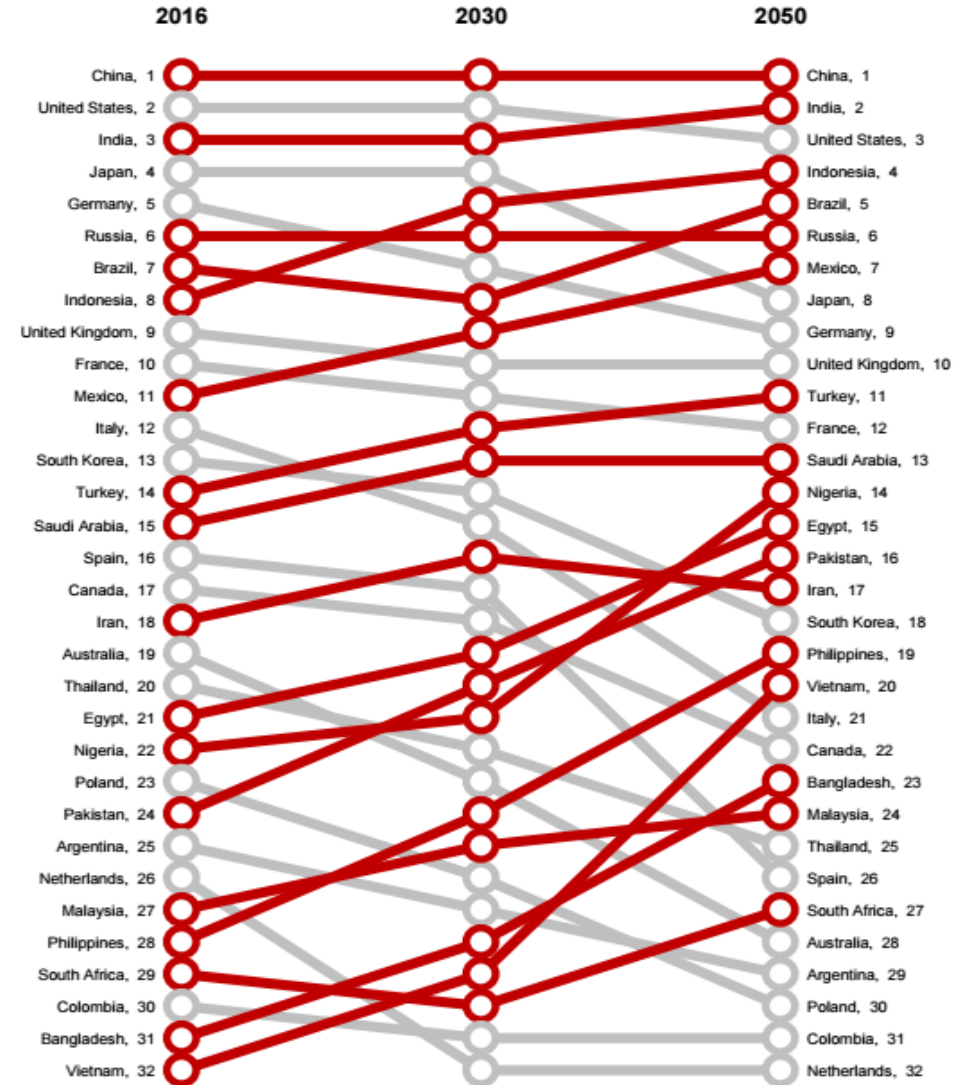
Share of world GDP (PPPs) from 2016 to 2050...



Sources: IMF for 2016 estimates, PwC analysis for projections to 2050

<https://www.pwc.com/world2050>

Figure 2: Projected GDP rankings (at PPPs)











Sources: IMF for 2016 estimates (updated for Turkey due to recent major statistical revisions), PwC projections for 2030 and 2050



# 중국의 종합 국력

## 예정된 전쟁(?)

500년 역사 동안 16차례 신흥 강국과 기성 대국의 충돌 → 12차례 전쟁

 <h3>국방력</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군사투사력의 차이</li> <li>▪미래 전력의 한계</li> </ul>	 <h3>경제력</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의 질</li> <li>▪잉여 국력의 부족</li> </ul>	 <h3>에너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수급 문제</li> <li>▪에너지 거브넌스</li> </ul>	 <h3>사회리스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과 군체성 시위</li> <li>▪사회적 유동성 확대</li> <li>▪질병과 전염병</li> </ul>
 <h3>교육,기술,R&amp;D</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의 질과 기술개발</li> <li>▪혁신 공간의 한계</li> </ul>	 <h3>인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위 인구의 질</li> <li>▪노령화와 노동력 부족</li> </ul>	 <h3>정치리스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화, 민주화 부족</li> <li>▪'견제와 균형'의 한계</li> </ul>	 <h3>소프트파워</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력 자산의 부재</li> <li>▪문화창조력, 창의력</li> <li>▪중국 위협론</li> </ul>

- 이미지와 실체(*fast growth vs. quality development*)
- 추세(*flow*)와 축적(*stock*)
- 총량(*gross*)과 순량(*net*)

# 미국 전략경쟁의 양상

## 미국의 압박

중국내 미국기업에 대한 **Reshoring** 압력

중국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사용금지

미국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중국기업에 판매시 미국승인요구(\* 대만 TSMC는 화웨이에 반도체공급 중단 선언, 미국에 120억 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설립 발표)

**WHO**에 대한 미국 지원 중단 검토

미국 연기금의 중국기업 투자 금지, 미 상원 '외국기업책임법' 통과 (미국거래소 상장한 중국기업은 미국 회계기준 준수 및 외국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증명 의무화)

중국 정부보조금 및 국유기업(SOEs) 문제 제기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

홍콩 특별지위 박탈, 중국 언론기관규제

## 중국의 대응

제1단계 합의 불이행, 특히 **미국 농산물 수입과 항공기 구매 중단**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 매도**, 중국의 **반독점법** 적용

애플, 퀄컴, 시스코 등 **미국 IT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이버 보안 검토조치 강화**

AI, 5G 통신망네트워크,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 무인공장시스템 등에  
**2025년까지 6년간 10조 위안**  
(1조4000억달러, 1700조원) 투자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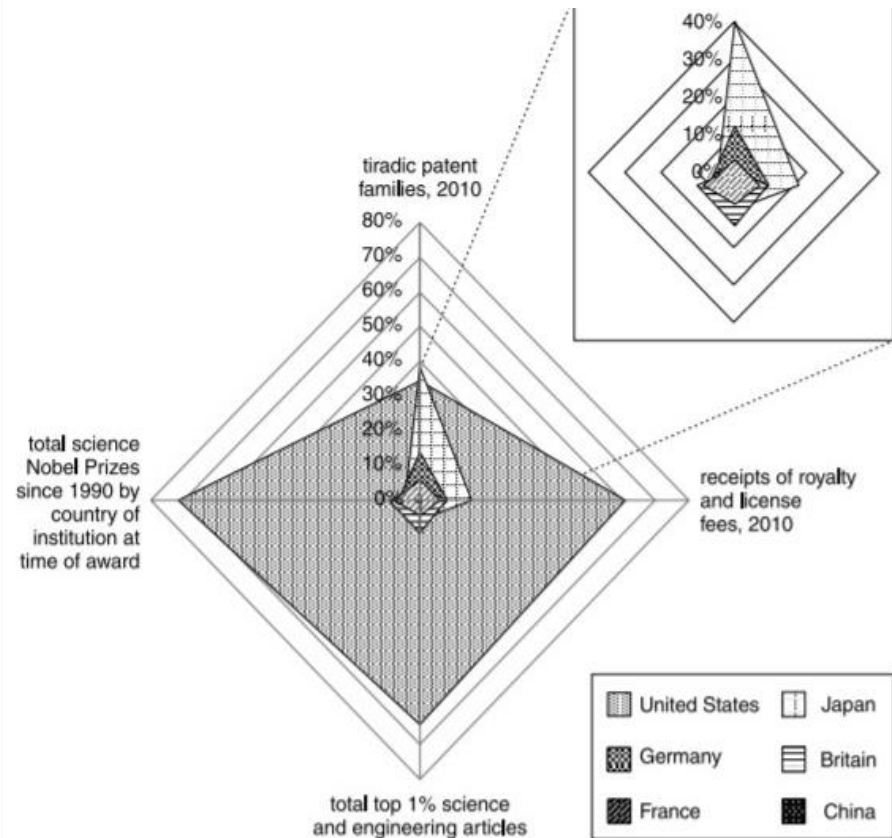
핵심이익에 대한 **비타협적 대응**(홍콩 국가보안법 등)

# 중국의 과학기술력

## Flow vs. Stock, Gross Indicator vs. Net Indic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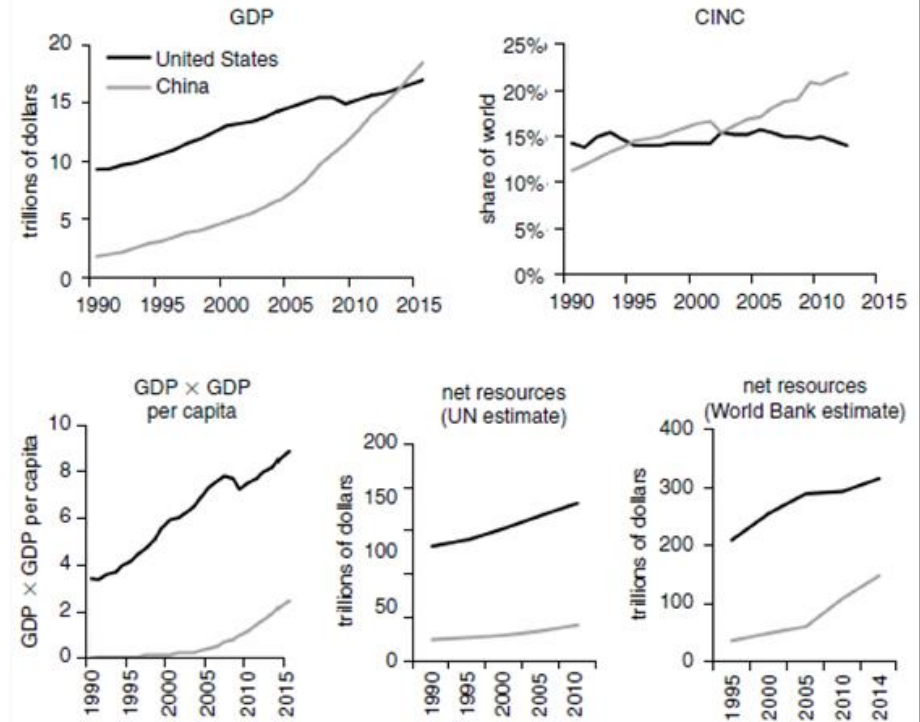
### 과학 기술력

6개 강대국들의 기술생산량  
(R&D투자비용, 이공계 박사학위자수) 및 영향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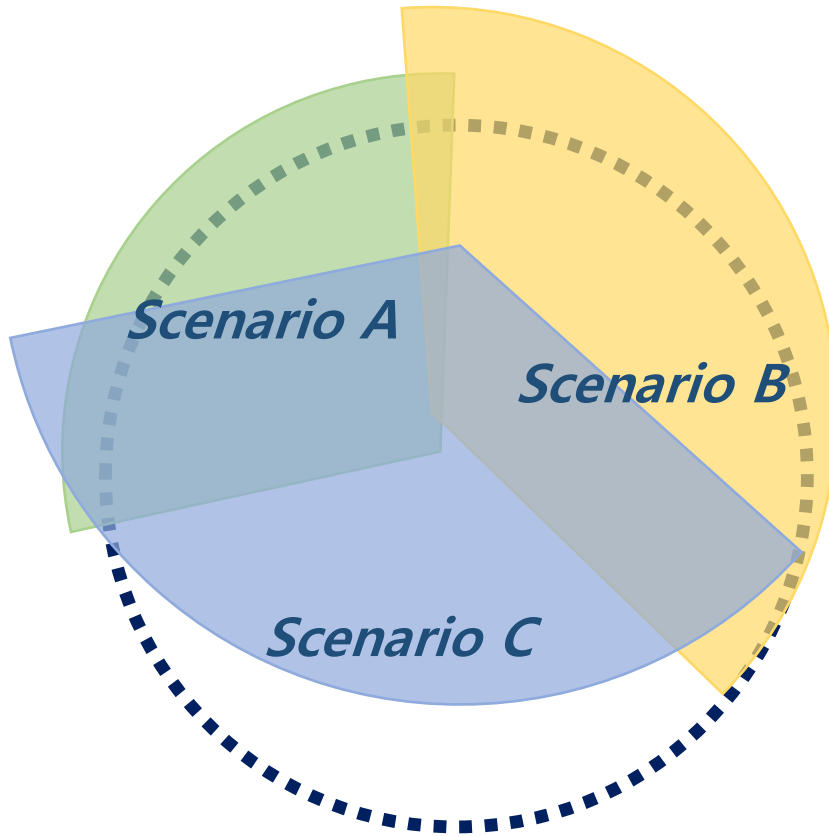
### 경제력

미중 간 힘의 균형 비교 (Gross/Net)



# 미중관계 시나리오

## 세 가지 가능성의 병립



### *Scenario A*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 속  
두 개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

### *Scenario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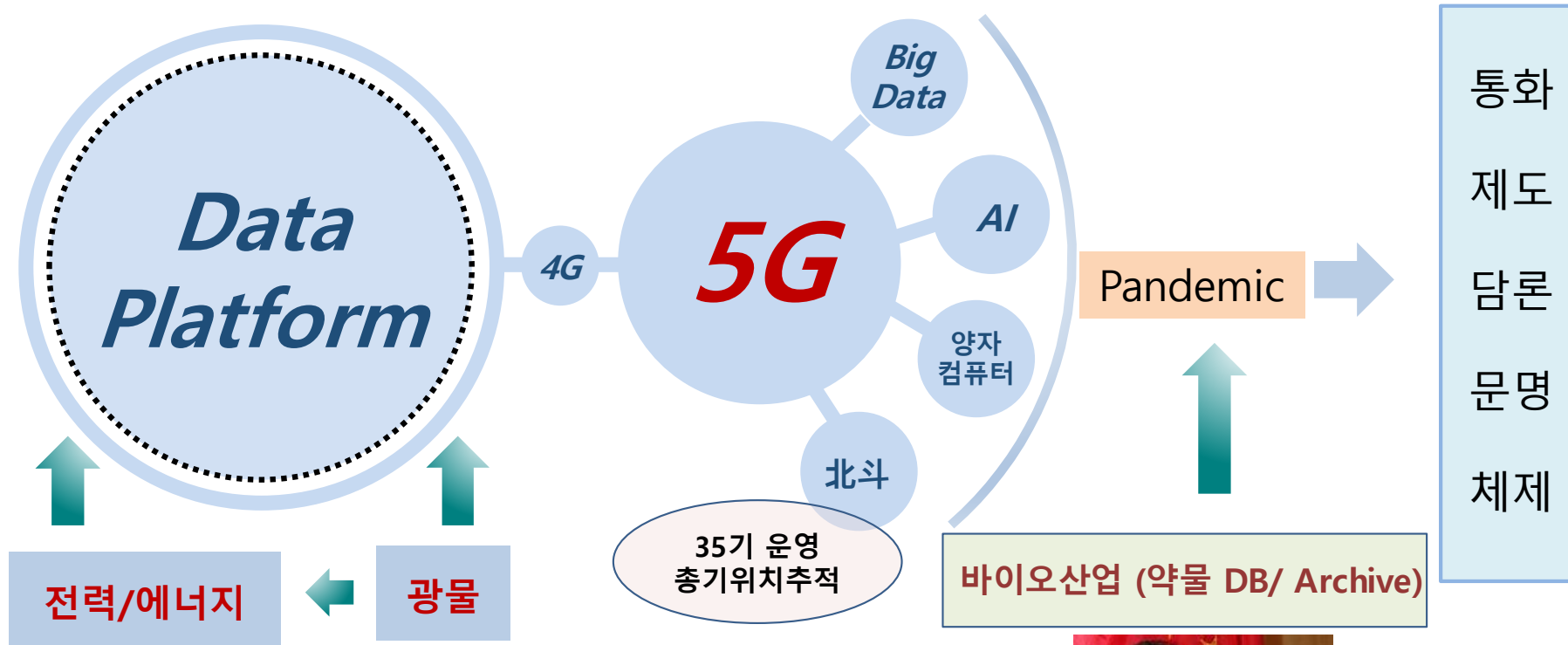
단극 체제 종언과  
(비냉전형) 양극 구도의 정착

### *Scenario C*

문명충돌 (코카서스인이 아닌 경쟁자와의  
문명충돌, 정말로 다른 문명과 다른 이데올로기  
와의 싸움)- 카이런 스키너(美 국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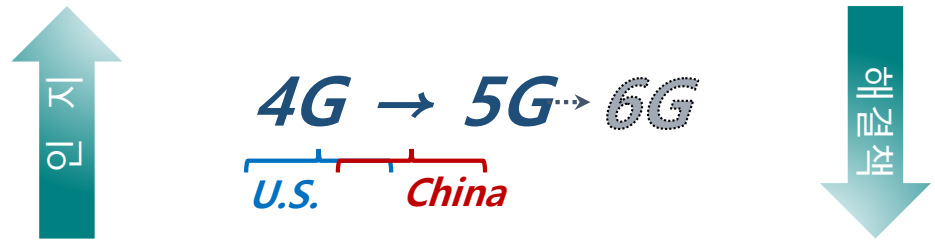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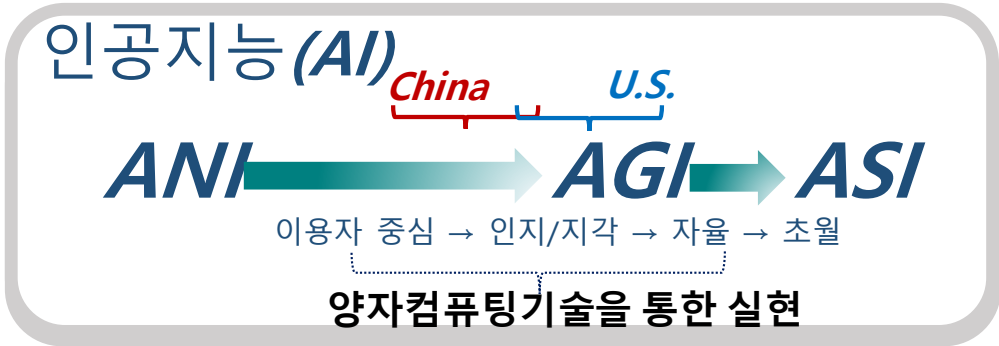
## 미중 전략경쟁과 기술패권

# 미중 데이터 플랫폼 경쟁



# Data Platform 개념도

## Data platform의 분야와 역할



## Data Platform,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

	미국	중국
<b>A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월한 인재 풀</li> <li>AGI 단계 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열한 상업화 동기</li> <li>ANI 단계</li> </ul>
<b>Big Dat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계의 데이터 수집 [Google, Youtube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최대 O2O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대하고 균일한 데이터</li> </ul>
<b>5G</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웨이 대안 제시 능력 부족</li> <li>5G 칩 능력</li> <li>설계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웨이 통신설비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특히 출원수 1위</li> <li>검증된 노하우</li> <li>개도국에서의 존재감</li> </ul>
<b>北斗 GP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PS 위성수 1위</li> <li>가장 높은 정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분한 상용화 성능 (중국+α)</li> </ul>
<b>양자 응용 기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자 컴퓨팅 기술 (IBM 시리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성 양자통신 성공 (중국의 fast mover)</li> </ul>



*R&D All-in One 단번도약(leapfrog)*

# 중국 Data Platform: SWOT

- 투입량
- 권위주의 사회의 데이터 수집과 적용
- 구현 능력
- 국유 단위의 연구능력
- 산업 집중도
- 시장 규모 및 잠재 성장률
- 활발한 창업 및 기회주의적 자본
- 대기업의 벤처 육성
- 정부의 지원
- 규제 완화

## *Strength*

- 발견 역량
- Stock
- 하드웨어 구현의 병목
- 문화수준 및 체험 수준
- 과잉투자 거품
- 균일 데이터의 명암
- 정부 지원의 비효율성

## *Weakness*

## *Opportunity*

-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미국식 투자 행태
- 전 세계적 데이터 플랫폼 개발 모멘텀
- 연구 성과의 글로벌 공유

## *Threat*

- 미국의 효율적인 R&D
- 유니콘을 만드는 창업 시스템
- 패권압력

*Low*

## *China's level of strength*

*High*

### *Foundational technologies*

- *Semi conductors*
- *New materials*
- *Basic research*

### *Core technologies*

- *Electric vehicle batteries*
- *Industrial robots*
- *Artificial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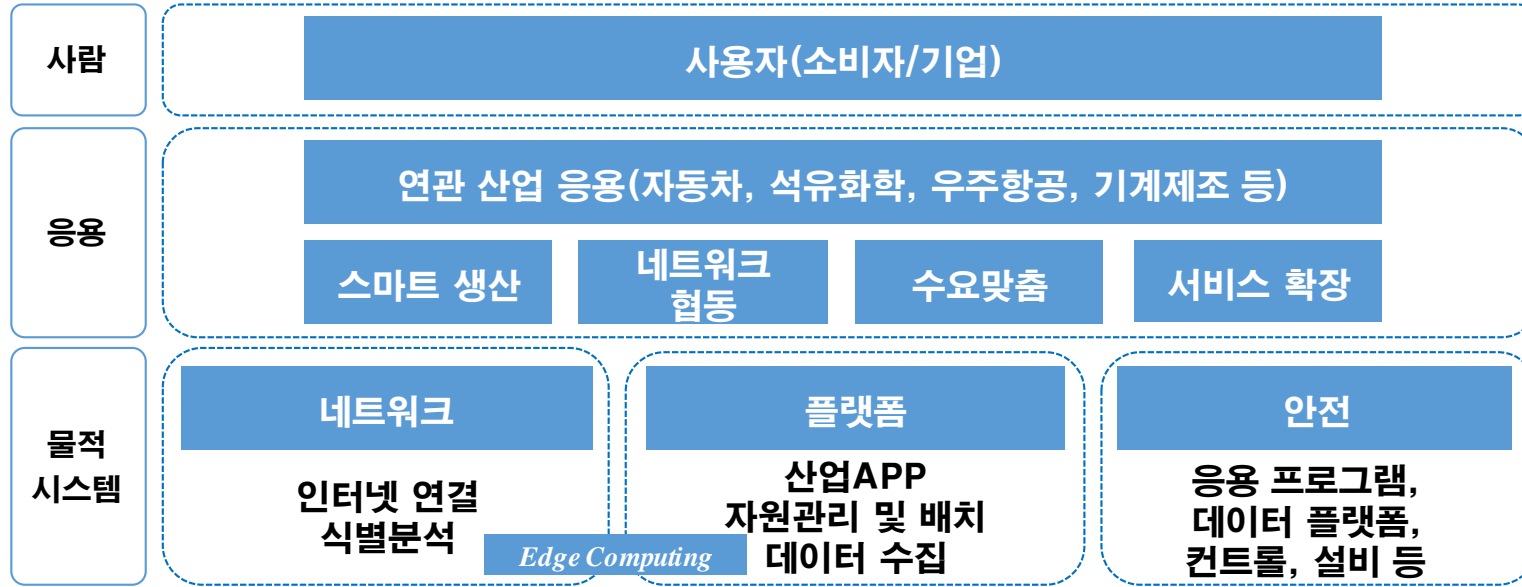
### *Future technologies*

- *Autonomous driving*
- *Smart cities*
- *Facial recognition*



# Data Platform: Big Data

## 2018~2025 중국 데이터센터 IT투자 전망



### 1단계 (~2025년)

- ▲ 안전 광역 인프라 설비 구축, 식별 분석 시스템 구축, 플랫폼 및 안전시스템의 기본 구축
- ▲ 5G 및 산업인터넷 중점 건설
- ▲ 각 지역 내 각 산업을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3~5개 국제수준 산업 인터넷 플랫폼 완성

### 2단계 (~2035년)

- ▲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인터넷 네트워크 및 인프라, 플랫폼 완성.
- ▲ 국제 선진 기술 및 산업 체계 구축
- ▲ 산업인터넷의 포괄적·심층적 응용 및 혁신적인 리더십 실현
- ▲ 안전 확보 능력 향상
- ▲ 핵심 분야의 세계 선두

### 3단계 (~2050년)

- ▲ 경제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산업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완성
- ▲ 혁신 발전능력, 기술 산업 체계, 융합응용 등 세계 선진수준 도달, 종합기술력 세계 상위권 진입

# Data Platform: 5G 경쟁

## [Strategy]

- 중국: 장기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명확함. (공공투자, 광범위한 발전 범위, 정부주도의 프로그램)
- 미국: 산업 주도의 기준과 투자, 빠르고 넓은 범위의 신제품 출시, 중국 화웨이 때리기를 통한 시간 확보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지적재산권 경쟁은 5G경쟁의 예선전: 경기. 중국, 유럽, 한국, 미국, 일본이 주도함. 현재 중국 기업들이 근소한 차이(narrow lead)로 앞서고 있으며, 중국 5G 기술을 대체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음.
- 중국 Huawei, ZTE, CATT, Oppo (35.51%), 한국 Samsung, LG and KT (21.42%), 미국 QUALCOMM, Intel, InterDigital (14.29%), 일본 Sharp, Fujitsu, Sony and NEC (5.3%), 유럽 Nokia, Ericsson, Innovative Technology, Sisvel (23.1%)

## [Standards]

- 중국은 표준기구에서 중요한 행위자이나, 세계적인 5G표준 과정을 지배하기엔 무리. 전반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은 5G표준설정과정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5G표준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은 다극적 권력 구조를 대표함.

## [Vendors]

- 무선 접속망(Radio Access Network, RAN) 시장은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이 전체시장 수입의 80%를 차지함. 최근 이 시장 수입이 줄어 다가오는 5G 신제품 출시는 이 판매자들에게 중요함.

## [Oper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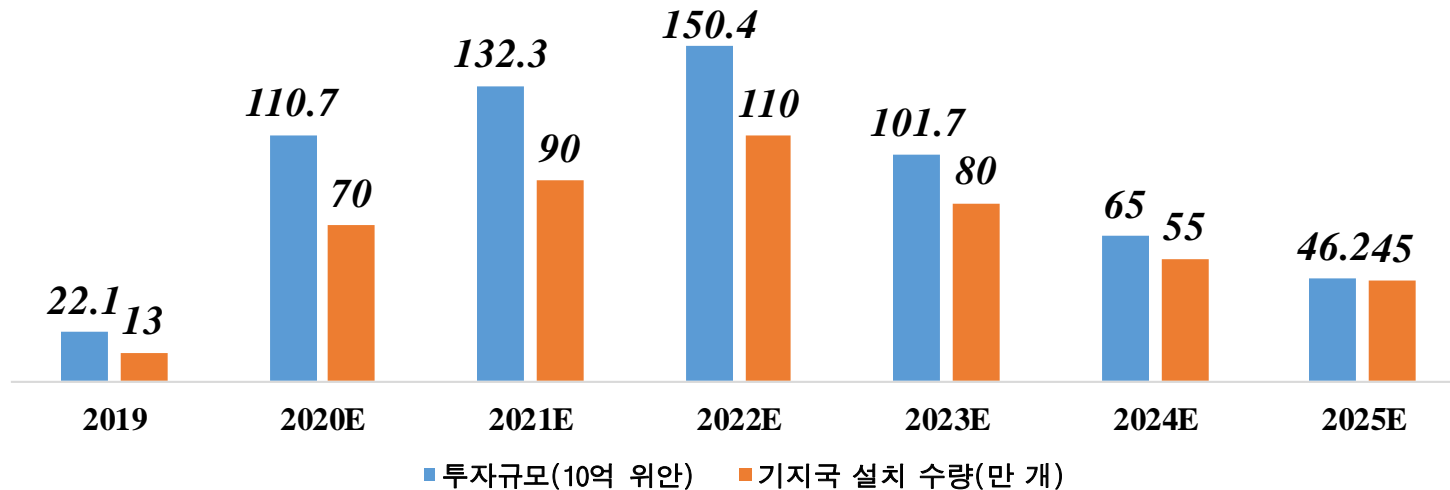
- 5G로의 전환은 네트워크 교환자 (network operators)로부터 수십억의 투자를 필요로 함. 정부지원, 허용절차에 따라 지역별로 비용이 달라짐. 지역적 시장크기와 집중도는 다양함. 네트워크 교환자의 구성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분절적임. 중국의 경우 가장 덜 분절적이어서 5G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Narr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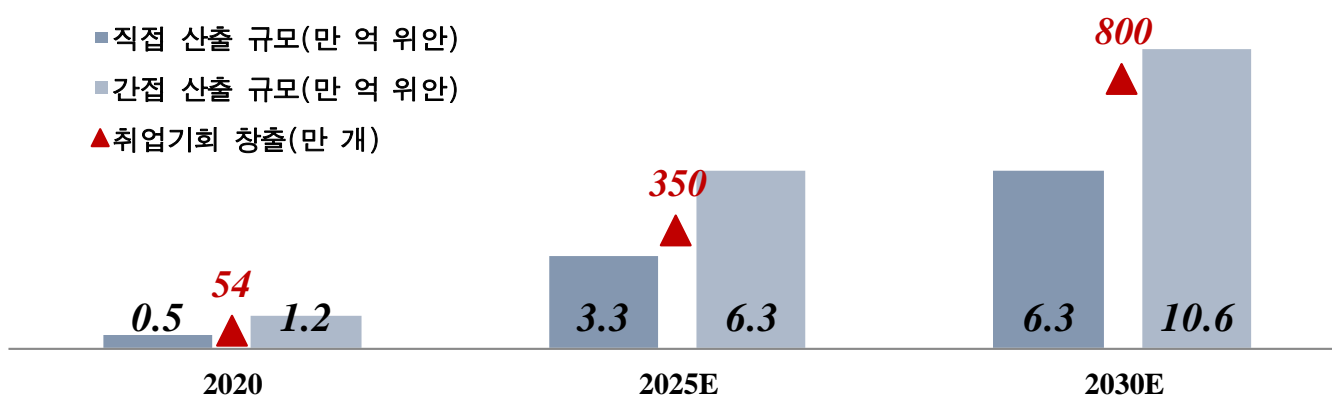
- 5G의 본질에 관한 특징 (1) Convenience, Connectivity, and Chances, (2)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3) Cyber Threats and National Security, (4) A Digital Arms Race, (5) A Matter of Allegiance
- 미국이 화웨이와 중국 행위자들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프레임하면서 미국은 그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이 중국생산자들을 시장에서 막아내도록 하고자 함(nudge). 5G는 미국에 대한 동맹들의 충성심을 평가하는 잣대(litmus test)가 됨.

# Data Platform: 중국의 5G 투자전략

## 2019~2025 중국 신축 5G 기지국 수량 및 투자전망



## 2019~2025 중국 5G 경제효과 및 취업기회 창출 전망



# Data Platform: 6G 경쟁

2030

6G

만물지능인터넷 시대  
AloE: Ambient IoE

사람-사물-공간-  
시스템의 초공간화

수조 개  
디바이스/센서  
행성

## 6G 구동을 위한 필수기술

- 고용량 주파수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
- 전력소모를 감당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무선충전 or Battery free)
-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획기적인 인공지능**
- 입체적 **보안시스템**(전파송수신기, 블록체인 등)
- C4(**Communication, Computing, Catching, Control**)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연산이 결합된 통합 최적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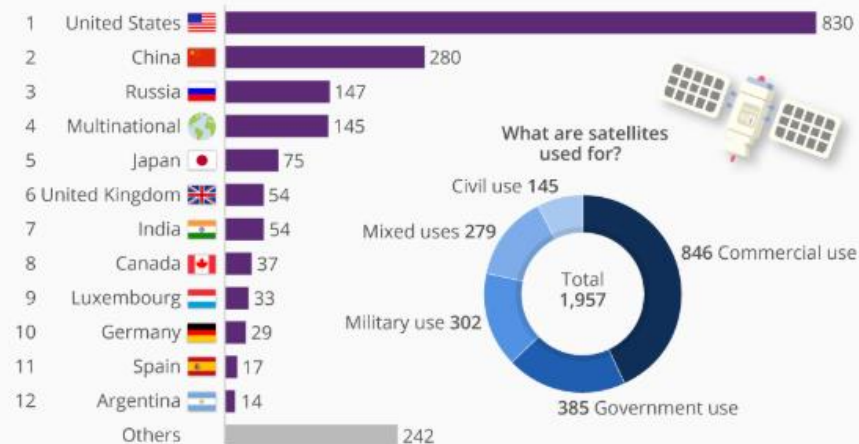
## 6G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표준 확립의 문제

- 인공위성 기반의 구현 가능성?
- 가시광선 기반의 구현 가능성?



인공위성방식이 표준이 된다면,  
기존 위성항법시스템에서 앞서있고, 상업적 위성을  
다량 발사하고 있는 **미국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나,**  
**중국의 北斗 발전 여부에 따라 판도가 바뀔 가능성**  
또한 있음.

Satellites currently orbiting Earth by country\* (as of Nov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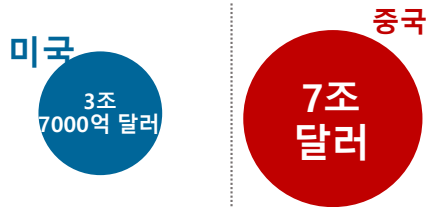


# Data Platform: AI 경쟁

## AI 기업 수(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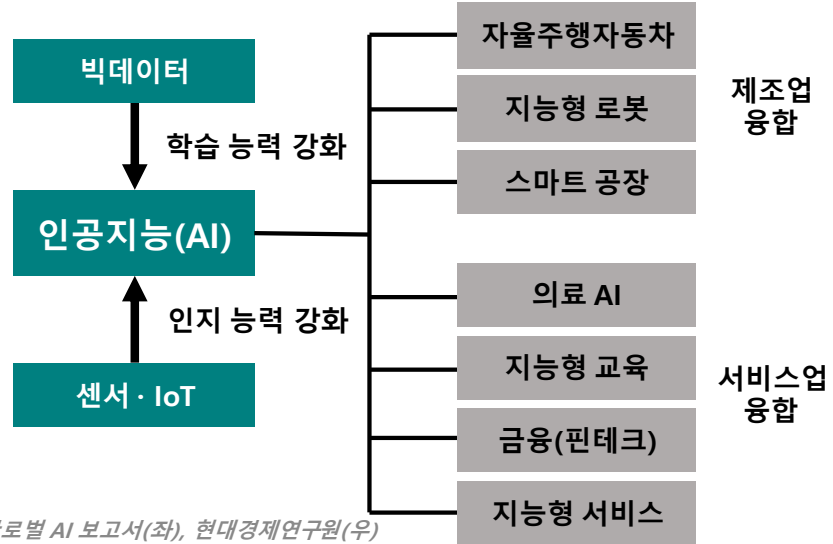
## 2030년 세계 AI 산업 내 비중



## AI 산업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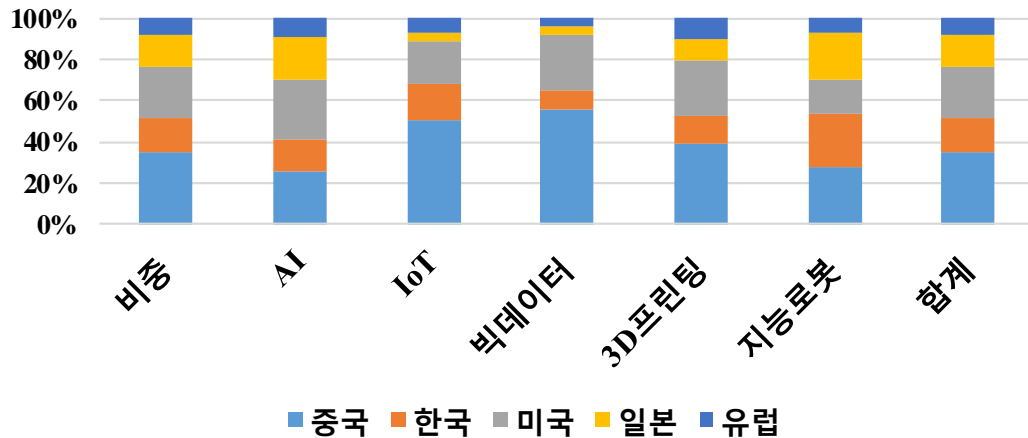
하드웨어 기반  
컴퓨터 파워 증대

소프트웨어 기반  
알고리즘 성능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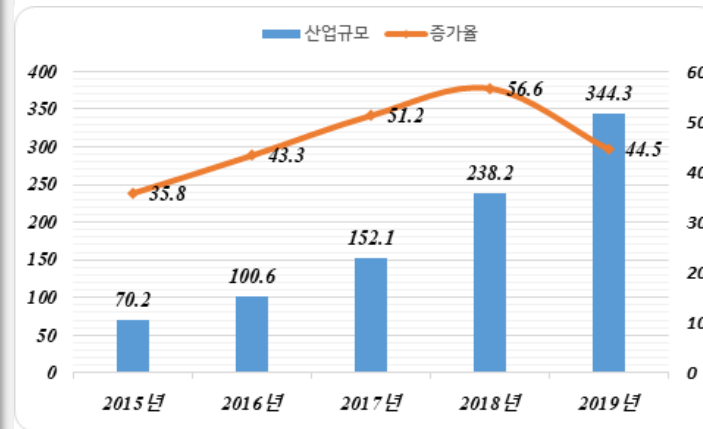


출처: 칭화대학 중국 AI 발전보고 2018, PwC 글로벌 AI 보고서(좌), 현대경제연구원(우)

## 2005-2017년 전 세계 출원일 국적별 특허출원 현황



## 중국 AI 산업규모 및 증가율



# Data Platform: 중국의 AI 전략

## 중국 인공지능(AI) 주요 분야

### 기초 기술

#### 알고리즘 이론

- 기계 학습 알고리즘
- 인공두뇌

#### 개발 플랫폼

- 기술 개방 플랫폼
- 기초 오픈 소스 프레임

#### 응용 기술

- 컴퓨터 비전
- 자연 언어 이해
- 스마트 음성

#### 컴퓨팅 하드웨어

- AI 칩

#### 데이터

- 데이터 수집
- 표시
- 분석

#### 계산 시스템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5G 통신
- 빅 데이터

### 주요 응용

#### 스마트 의료

- 질병 예측
- 약물R&D
- 원격 진료
- 의료 영상

#### 스마트 금융

- 스마트고객상담
- 금융 감독
- 스마트컨설팅
- 대출평가

#### 스마트 교육

- 가상 교실
- 원격 학습지도
- 스마트 문답
- 과제 평가

#### 스마트 교통

- 차량 검사
- 차량 식별
- 교통 관리
- 무인 운전

#### 스마트 홈

- 가전IoT
- 홈로봇
- 스마트도어래치
- 스마트 조명

#### 스마트 소매

- 스마트 물류
- 스마트 택배
- 무인 상점
- 스마트 캐싱

#### 스마트 제조

- 제품 검사
- 스마트 운영
- 스마트공급체인
- 산업용 로봇

# Data Platform: 미중 Big Data 경쟁

구분	설명	예	우위	비고
수량	사용자 또는 사례 수	페이스북 사용자 수 및 공유자전거를 통한 여행의 수	경쟁	미국=안정적 우위 중국=급격한 확장
정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용자의 행위 혹은 사례의 다양한 양상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식사, 여행 등의 활동	중국	스마트폰을 통한 도시 활동의 비중
품질	데이터의 정확도, 데이터의 구조화 및 데이터 저장 방법	기업 금융 기록의 형성 과정과 저장 방법	미국	미국=민간부분 우위 중국=공공부분 우위
다양성	사용자 혹은 사례의 다양성	민족별 다양한 얼굴의 인식	미국	미국=전세계 사용자 중국=중국내 사용자
접근성	행위자들의 데이터 접근 가능성	감시화면의 접근 방법과 접근의 범위	중국	감시 카메라 및 교통 카메라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접근성

# Data Platform: 중국 Big Data

## 중국 데이터 플랫폼의 경쟁력

### 데이터

- 투입량
- 권위주의 사회의 데이터 수집과 적용

### 엔지니어

- 발견(discovery)역량은 부족하지만, 구현(Implementation) 능력은 풍부
- 국유 단위의 연구능력

### 기업가

- 높은 산업집중도
- 시장규모
- 활발한 창업과 기회주의적 자본
- 대기업의 벤처 육성

### 정부

- 정부의 비효율적(not efficient)이지만 효과적인(but effective) 지원
- 과감한 규제 완화

## 중국 데이터 플랫폼의 약점

- 여전한 Stock의 부족
- 모방하기 힘든 미국의 효율적 R&D 및 창업 시스템
- 하드웨어 구현의 병목

- 낮은 문화수준과 좁은 체험수준
- 과잉투자 거품소멸 가능성
- 균일 데이터의 명암



# Data Platform: 위성항법시스템, 양자컴퓨팅

## 미중 위성항법시스템

### 미중 위성항법시스템

구분	GPS	베이더우
운영 국가	미국	중국
위성 수	31~33	35~40
글로벌 서비스	1978년	2018년
정확도	5m 이하	5~10m

2000년-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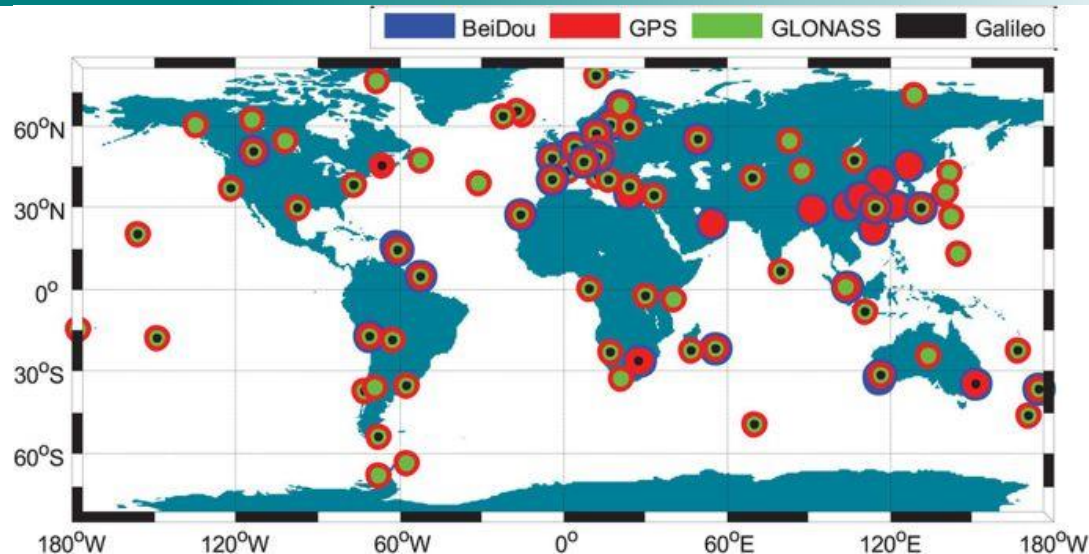
2012년-아시아-태평양

2020년-전세계



출처: 중국위성항법시스템관리실

### 미중(BeiDou, GPS) 위성항법시스템 현황



## 미중 양자정보통신

### 양자정보통신

양자암호통신:  
높은 수준의 보안능력

양자컴퓨터:  
초고속 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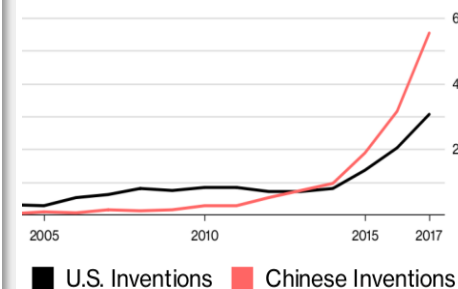
양자 소자 및 부품:  
초정밀 예측

### 미중 양자정보통신 투자규모

미국:  
1조 3,500억원 예산 규모  
정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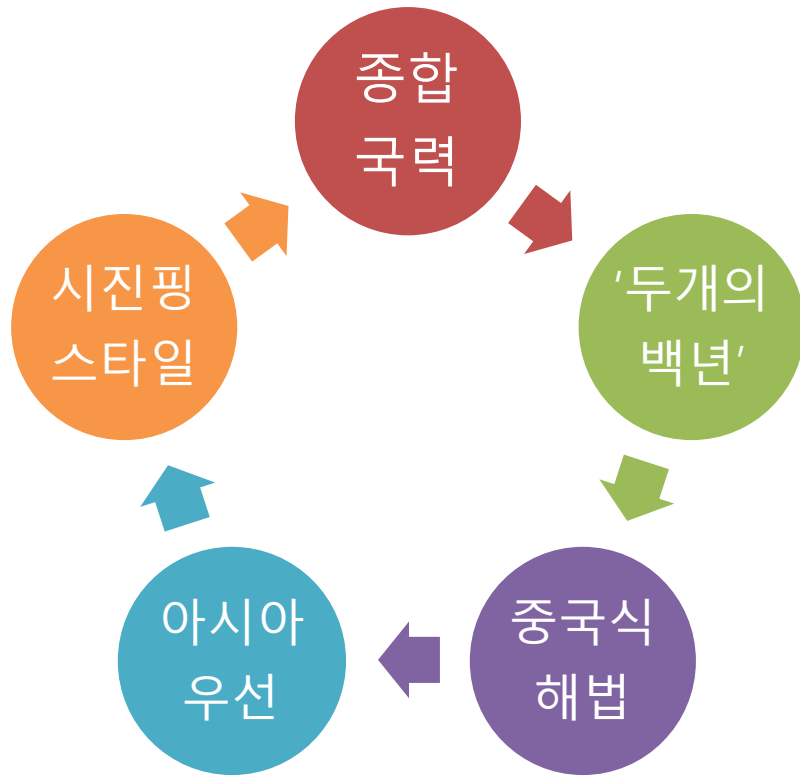
중국:  
2020년까지  
13조원 투입 목표

### 미중 양자컴퓨팅 특허기술



출처: Bloomberg

#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신형국제관계 (cf. 신형대국관계)  
국제관계의 민주화 (다극화, 독점의 해체)
- 인류운명공동체(Shared Future)  
지역인류운명공동체로의 진화
- 핵심이익(core interest) 확보
- 적극 (assertive)외교
- 재지구화(re-globalization)에 대비
- 중국식 개방, 다자, 국제협력

## • 정체성의 정치

19세기 마르크스주의	20세기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와 엥겔스 학설	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허이팅, 당교 상무부교장(2020.6.15)

# 중국의 전략조정: '스마트 플러스'

## '스마트 플러스'를 통한 기술자립화

- '2019 정부업무보고': 지속적 혁신/거시조절 개선 및 합리적 경제운행 확보, 혁신 견인의 발전 견지 및 신 성장동력 육성, 오염 방지와 생태건설, 친환경 발전 추진 등 10개 업무 제시
- 지속적 혁신/거시조절 개선 및 합리적 경제운행 확보: 미중 분쟁 심화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2018년 하반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금융정책 등 다양한 경기부양 대책의 지속적 추진 예상
- 혁신 견인의 발전 견지 및 신 성장동력 육성: 처음으로 '**스마트 플러스**' 단어 사용, 문건 전반에 걸쳐 사용된 '인터넷 플러스' 관련 단어 사용 횟수도 작년보다 증가, 미중 무역분쟁과 기술패권이 치열한 상황에서 선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향후 AI, Big data, Cloud 등 기술과 전통 산업 융합이 최우선 산업정책**이 될 것임을 시사
- 오염방지과 생태건설, 친환경 발전 추진: 작년에 비해 비중 증가, **친환경 산업**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순수 전기 자동차 및 수소연료 자동차, 도심 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공유자동차,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과 상용화 가능성 예상

분 야	미국	중국
산업 스마트센서 침투율 (%, 2016년 기준)	12.0	4.6
기업 클라우드 기술 사용률 (%, 2017년 기준)	80	30
기업 빅데이터 분석 관련 특허 수 (건, 2007-2018년 기준)	5,203	933
산업로봇 사용밀도 (노동자 만명 당 대수, 2016년 기준)	68	18

	2019년	2018년
1	지속적인 혁신과 거시조절 개선, 합리적인 경제운행 확보	공급측 개혁 추진
2	시장주체 활력 활성화,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혁신형 국가 건설
3	혁신 견인의 발전 견지, 신 성장동력 육성	기초 핵심 분야 개혁
4	국내시장 강화, 내수잠재력 활성화	3개 난제 해결(중대리스크 예방, 빈곤해결, 오염방지)
5	전면적인 사오강 사회 건설 맞춤형 임무, 빈곤해소와 농촌진흥 추진	농촌진흥 전략 실시
6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신형 도시화 질적 제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전략 추진
7	오염방지과 생태건설, 친환경발전 추진	소비확대 및 효과적인 투자 촉진
8	중점분야 개혁, 시장 메커니즘 개선	새로운 형식(일대일로 등) 전면 개방
9	대외개방 확대, 국제경제협력과 경쟁 우위 육성	민생수준 지원과 개선
10	사회사업 발전과 민생 지원과 개선	-

# 중국판 뉴딜: 7대 신 인프라건설

구분	현황	목표	투입 예산
5G 인프라	2020년 기준 8개 지역 내 5G 기지국 신축. 총수량: 27만 6천 개.	2020년 내 신축 5G기지국 60~80만 개.	총 규모 약 2,500~3,000억 위안. : 기지국 당 원가평균 약 40만~50만 위안
인공지능	2015~2018년 간 인공지능 시장규모 연평균 복합성장률 54.6%.	2023년까지 20개 안팎의 인공지능 시험구 배치 예정.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 50억 위안, 관련 산업 규모 200억 위안.	2020년 기준 약 300억 위안.
빅 데이터 센터	2018년 기준 인터넷 데이터 시장 규모, 전년 동기 대비 29.8%가 증가한 1,000억 위안.	2025까지 데이터 센터 IT 투자 규모, 약 7,000억 위안 전망.	2020년 기준 관련 산업 시장 규모 약 1,600억 위안, 빅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 약 600~800억 위안.
산업 인터넷	2019년 기준 산업 인터넷 시장 규모, 전년 동기 대비 6.64%가 증가한 4,800억 위안.	2020년까지 비교적 완벽한 산업 인터넷 네트워크 총괄 체계 완성 및 산업 인터넷 인프라 및 관련 기술 산업 체계 초보 구축 완성.	2020년 기준 시장 규모 5,500~7,000억 위안, 관련 인프라 투자 약 500~1,000억 위안.
특고압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일부 특고압 중대 사업 회복(총 규모 약 713억 위안). 동시에 265억 위안 규모의 신규 착공 사업이 시작하며, 총 약 1,000억 위안 규모 달성.	2020년 내 확정착공 및 준공 특고압 송전선 12개, 투자 규모 약 1,500억 위안.	2020년 기준 특고압 관련 투자 약 800-1,000억 위안.
도시간 고속 및 도시궤도 교통	2019년 기준 건설 허가를 받은 도시 간 궤도교통 노선은 59개, 이 중에서 29개는 이미 착공 시작(이 중 2개 선로는 이미 시운영 단계).	2020년 내 약 30개 선로 시공 예정.	2020년 기준 도시 궤도교통 약 4,000-5,000억 위안, 도시 간 고속철도 약 1,500억 위안, 총 투자 규모는 약 6,000~6,500억 위안.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대	2019년 말 기준, 전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 381만대, 공공 및 개인 충전대 보유량 122만대, 차량 대 충전대 비 약 3.1:1	2020년에 공공 및 개인 충전대, 각각 약 15만대, 37만 대 증가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차량과 충전대 간 1:1을 목표로 함.	2020년 기준 총 투자 예산 약 200-300억 위안. : 교류전 충전대 개당 설치원가 약 3~36만 위안. : 직류전 충전대 개당 설치원가 약 2천~3천 위안.
합계	2020년 내 7대 신 인프라 건설 총 투자 예산, 약 1조 2,000억 위안(약 201조 원). 2019년 중국 인프라 투자 총액의 약 7% 차지.		

# 정치국원 집체학습

회수	시간	주제	비고
제1회	2017-10-27	당의 19대 정신을 깊이 공부해 관철시키자	시진핑 주관,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토론 참여
제2회	2017-12-8	국가 빅데이터 전략을 실시하여 디지털 중국 건설 가속화	베이징이공대학 부총장, 중국과학원 원사 발표
제3회	2018-1-30	현대화 경제 체계 건설	정치국원들이 견해 교환
제4회	2018-2-24	헌법과 전면적 의법치국 추진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연구원
제5회	2018-4-23	<공산당 선언> 및 그의 시대적 의미	중앙당사와 문헌연구원 연구원
제6회	2018-6-29	당의 정치 건설 강화	중앙조직부
제7회	2018-7-31	군대 유상 서비스 전면 중단	군대 유상 서비스 전면 중단 공작 영도 소조 판공실 부주임
제8회	2018-9-21	농촌 진흥 전략 실시	농업농민부 부장/국무원 빈곤구제 판공실 주임
제9회	2018-10-31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추세	베이징대 교수/ 중국 공정원 원사
제10회	2018-11-26	중국 역사의 관료 선발과 관리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 연구소 연구원
제11회	2018-12-13	국가 회계감사 체제 개혁 심화	중앙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법규실 주임
제12회	2019-1-25	옴니 미디어 시대와 뉴미디어 융합 발전	인민일보 뉴미디어센터에서 조사연구, 설명, 토론
제13회	2019-2-22	금융 서비스 보완, 금융 리스크 대비	실크로드 기금 책임 유한 공사 당서기
제14회	2019-4-19	5·4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가치	중국 공청단학교 특임 교수, 중국 청소년 연구센터 연구원
제15회	2019-6-24	초심을 기억하고 사명을 완수해 자아혁명을 추진하자	중앙당사와 문헌연구원 연구원
제16회	2019-7-30	군사 정책 제도 개혁 추진	군사과학원 연구원
제17회	2019-9-24	신중국 국가제도와 법제도의 형성과 발전	전인대사무위원회 위원, 헌법과 법률위원회 위원
제18회	2019-10-24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현황과 추세	저장대교수, 중국공정원 원사
제19회	2019-11-29	중국의 긴급 관리 체계와 능력건설	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
제20회	2020-5-29	민법전을 착실히 실시하자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민법실 주임, 행정법학연구회 부회장
제21회	2020-6-29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깊이 학습,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자	당중앙 조직부 비서장 후진치 발표 (창당 99주년 전일)

**한국에 대한 함의**

# 정책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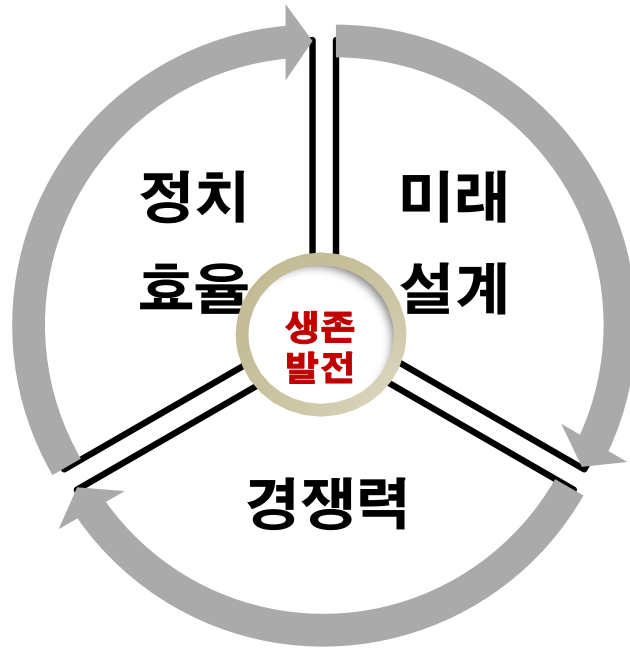
- **외교 원칙: 개방, 다자, 국제무역, 연대, 포용**
- **정세인식**
  - 복합방정식 (미 중+ 남북+ 시간 + 경제-안보nexus)
  - Bottom line Thinking
-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시간**
  - 한반도 문제의 중심성 확보 (Issue Ownership)
  - 4강외교와 남북관계의 최대한 분리
  -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최종상황(End state)
-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극복**
  -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을 동시에 축소
  - 연동형 종속구조 극복
  - 이슈별 대응
- **확대균형(extended equilibrium)**
  - 한국형 다자주의 복원:전략적 자율성 확보
- **탈중국화의 문제**
  -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로서 인도와 동남아가 대체가능한가
  - 미국이 EPN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가, EPN이 제도화될 수 있는가
  - Apple과 테슬라는 왜 대중투자를 확대하고 있는가

# 미중관계와 한반도: 주요쟁점

쟁점	중국	미국	한국의 태도	민감도
사드 추가배치	적극반대	추진	현상유지	높음
중거리 핵전력	적극반대	추진	반대	높음
한미일지역동맹	적극반대	추진	반대	높음
홍콩보안법	양보불가	적극반대	모호성	높음
대만문제	양보불가	전략카드화	반대	높음
EPN	반대	추진모색	원칙적 반대	중간
G11	소극적 반대	추진	참여	약함
(미)글로벌생산동맹	우려	추진시도	반대	중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원칙적 반대	추진	제한 참여	중간
화웨이 배제	반대	적극추진	유보	높음
남중국해 항행자유	원칙적 반대	추진	원칙적 지지	높음
인도-태평양전략	비판	적극추진	원칙적 지지	중간
한중일 FTA,RCEP	추진	우려	지지	낮음
일대일로(BRI)	적극추진	반대	참여	중간
WTO개혁	추진	탈퇴압박	참여	중간
한반도 비핵화(재제)	소극적 반대	추진	원칙적 지지	중간
한중외교형식 격상	추진	우려	원칙적 지지	낮음



# 무엇을 할 것인가



## 정치 효율 “국가란 무엇인가”

- 매물비용 축소
- 튼튼한 중간세력(Middle class): 진자폭의 축소
- 미래 전략연구과 장기비전의 설계
- 백서 없는 청서(Blue Print)의 문제

## 이미 도래한 미래의 설계

- 이념의 극복 (미래담론이 없는 곳에 청산담론 확대)
- 한중간 “가치의 거리” 확대 대비
- 남북한 CEPA 등 한반도 경제권의 새로운 모색

## 경쟁력 (Costly Signaling)

- 가치사슬체계의 진영화, 블록화 대비
- 복잡하고 까다롭고 긴 프로세스의 구축
- 세계전략의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
- 집단지성의 확대

天有外天

# 글로벌 리더십 공백의 'GO' 시대



여시재 미래디자인실장  
황세희

## 코로나 19와 G0의 국제질서

Ian Bremmer, *Every Nation for Itself: Winners and Losers in a G-Zero World* (2012).

- “글로벌리더가 사라진 세상이 적어도 10여년 이상 지속될 것”
- G0 시대에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킬 5가지 시나리오
  - 미국과 중국의 공조체제인 G2
  - G20이 제대로 굴러가는 조화
  - 냉전 2.0 혹은 그 이상의 것
  - 지역별 분열
  - 시나리오 X라고 칭한 G서브제로

“Global political economy has no sharper or more prescient analyst than Ian Bremmer.”—LAWRENCE SUMMERS

# EVERY NATION FOR ITSELF

What Happens When No One Leads the World

NATIONAL BESTSELLER



IAN BREMMER

author of *The End of the Free Market*

With a New Preface



## COVID-19 이전의 세계란?

### ‘디폴트 파워(The Default Power) 미국’이 존재하던 시기

- Josef Joffe, “**The Default Power: The False Prophecy of America's Decline,**”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9.
- 디폴트 파워: 모든 글로벌 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
- 경제력, 교육인프라, 군사력, 젊은 인구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쇠락하지 않을 것
- 미국 없이는 글로벌 질서의 유지와 운영이 무의미

## FOREIGN AFFAIRS

Magazine ▾ Regions ▾ Topics ▾ Collections ▾ Book Reviews ▾ More ▾

### The Default Power

The False Prophecy of America's Dec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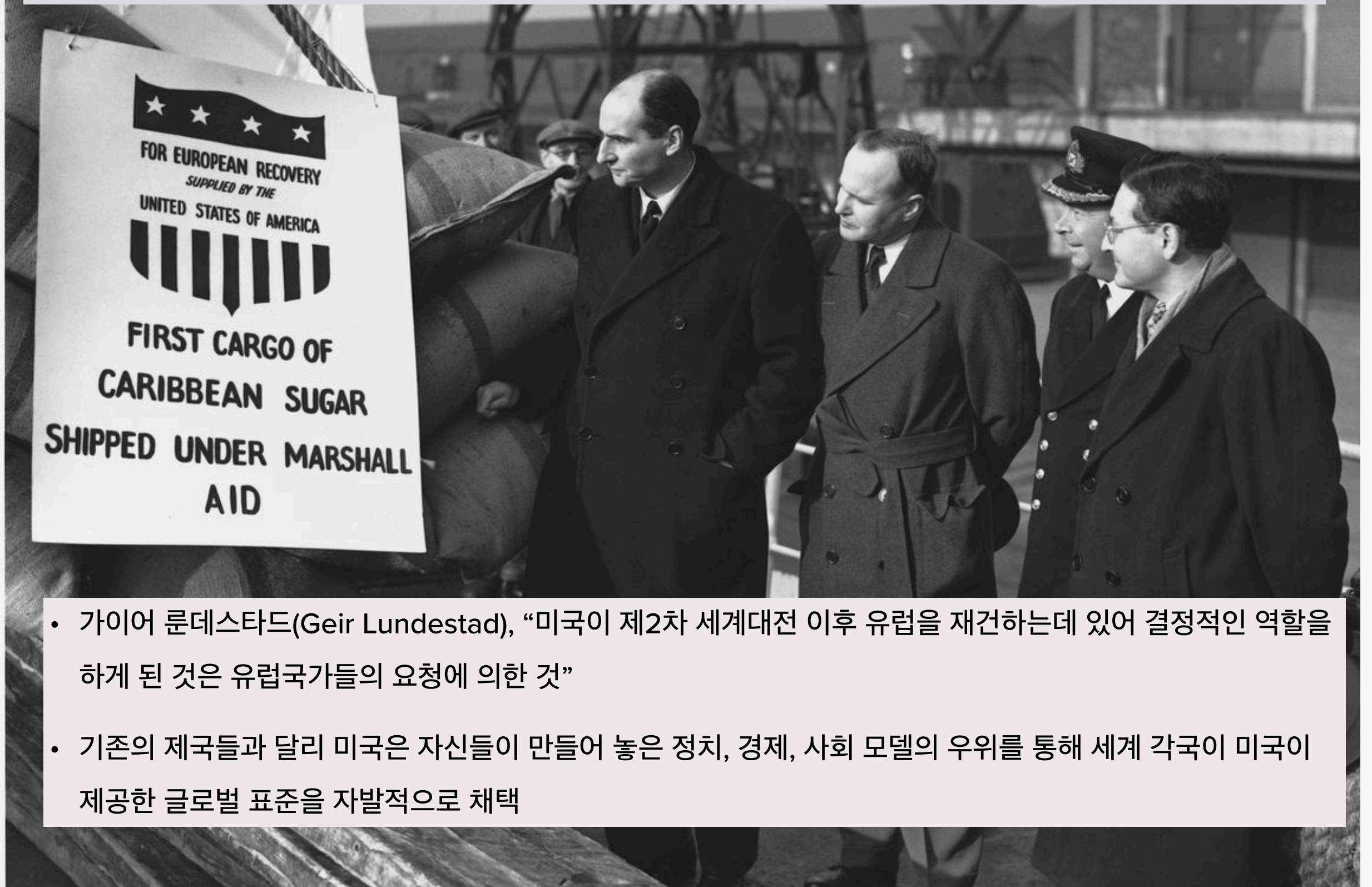
By Josef Joffe September/October 2009



Courtesy Reuters

Every ten years, it is decline tim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it was the Sputnik shock, followed by the "missile gap" — trumpeted by John F. Kennedy in the 1960 presidential campaign. A decade later, Richard Nixon and Henry Kissinger sounded the

## ‘초대받은 제국(Empire by Invitation)’, 미국



- 가이어 룬데스타드(Geir Lundestad),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재건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유럽국가들의 요청에 의한 것”
- 기존의 제국들과 달리 미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모델의 우위를 통해 세계 각국이 미국이 제공한 글로벌 표준을 자발적으로 채택



## 글로벌 리더십보다 '아메리칸 퍼스트'

- 미국이 글로벌 질서의 기초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이상 국제질서의 '디폴트 값'이 아님
- 미중 무역분쟁
- 미국-EU 무역분쟁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 2020년 7월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 멕시코의 노동조건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요구



USMCA 서명

## 디폴트 파워에서 퇴장하는 미국

### USTR, 2020년 무역정책 아젠다 및 2019년 연차 보고서

- 자국내 일자리 창출이 최대 목적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 12개월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1만5000개가 사라진 반면 당선 이후 미국 경제에 50만개가 넘는 제조업 일자리가 추가”
- 영국, EU, 케냐와 신규 무역협정 추진
- 미일간 무역협정과 디지털 교역 협정,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추가 협상
- 미국은 자국 무역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집행
- 양허 관세율을 비롯한 WTO의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 2020 Trade Policy Agenda and 2019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디폴트 파워에서 퇴장하는 미국

###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에 대한 일방적 이탈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2017)
- 유네스코 탈퇴(2019.1)
- 파리기후협약탈퇴(2019.11)
- 항공 자유화 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 선언 (2020.5.)
- WHO 탈퇴 선언(2020.7.6)
-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 (2019)
-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



출처 : Warwick Hong Kong Public Affairs and Social Service Society



출처 : <https://www.npr.org/>

# 미국은 소련의 길을 걸을 것인가

Harold James , “Late Soviet America,”  
*Project Syndicate*, Jul 1, 2020.

- 2020년의 미국은 붕괴직전의 구 소련이 거쳤던 상황에 직면
- “미국이 말년의 소련처럼 지도력의 비극적인 실패와 마침내 끓어오른 사회경제적 긴장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 지난 3년 반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음. (이란, 중국,러시아)
-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에서도 달러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강구
- 국가중심이 아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은 빈곤과 제도적 저개발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제도적 복잡성과 혁신과 번영의 기회로 전환하는 수단을 제공
- 코로나 19로 드러난 미국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의 기본적인 역량과 국가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지도



English



32

## Late Soviet America

Jul 1, 2020 | HAROLD JAMES

*Like the Soviet Union in its final years, the United States is reeling from catastrophic failures of leadership and long-suppressed socioeconomic tensions that have finally boiled over. For the rest of the world,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s that the hegemony of the US dollar may finally be coming to an end.*

**P**RINCETON – The Soviet Union was fertile ground for political jokes, which featured as prominently in the culture as late-night comedy does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one popular story, a young man who shouted in Red Square that the decrepit Soviet leader Leonid Brezhnev was an idiot ended up being sentenced to 25.5 years in prison – six months for insulting the Chairma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Soviet, and 25 years for revealing state secrets.



America's Compromised

The Trump administration's furious reaction to a new book by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has followed a similar script. The book is considered dangerous not so much because it insults Donald Trump as because it reveals that the president is deeply incompetent and “stunningly uninformed.” If it wasn't obvious already, the whole world now knows that the US lacks any strategic orientation or coherent executive leadership.

In fact, many aspects of America's current *annus horribilis* recall

### FEATURED

1 China's Deep Geopolitical  
Jul 16, 2020 |

2 G20, Heal T  
Jul 15, 2020 |  
SACHS

3 Keep Borde  
Jul 17, 2020 |  
KOUJIANOU

4 Saving the Deal  
Jul 14, 2020  
BORRELL



## 뉴 노멀은 미중경쟁이 일상화된 세계

미국의 미래가 소련과 다를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차이는 붕괴할 국가를 대체할 국가가 존재하느냐는 것

-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은 냉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미국이 굳건히 패권의 공백을 흡수했기 때문
  - 냉전후 질서의 성립과 미국의 리더십 : 독일의 통일, 유럽연합의 탄생과 NATO의 동유럽으로의 확장, 미일동맹의 재확인 과정
- ※ 미국이 소련처럼 붕괴할 경우, 중국은 과거 미국이 담당했던 글로벌 질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디폴트 파워’로서 기능할 것인가?
- ※ 국제사회는 중국을 과거의 미국처럼 ‘제국으로서 초대’할 것인가?

**Trade is just an opening shot in a wider US-China conflict**



출처 : The Financial Times

## the future of U.S-China conflict

### CSIS, *The Higher Road: Forging a U.S. Strategy for the Global Infrastructure Challenge*, April 23, 2019

-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세계의 디지털 인프라를 독점하거나 그것을 지배하는 표준이나 규칙을 지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

### John Chipman, “China’s long and winding Digital Silk Road,” *IJSS*, January 25, 2019.

- 중국이 일대일로 선상에서 추진 중인 광섬유 케이블, 국제 간선 통로, 모바일 구조, 전자상거래 링크 등의 건설은 참가국에 공통적인 기술 표준을 도입하도록 설계





# 한국의 외교전략, 뉴 노멀로의 전환이 시급

- 한국의 정책공공외교는 한반도 문제, 북핵 외교에 집중

**RAND** OBJECTIVE ANALYSIS. EFFECTIVE SOLUTIONS.

RESEARCH · LATEST INSIGHTS · POLICY EXPERTS · CAPABILITIES · GRADUATE SCHOOL

RAND > Topics >

## South Korea

FILTER BY By Type | FILTER BY All Authors

**COMMENTARY**  
**Moon's North Korea Vision Up in Smoke? Not So Fast...**  
 Even after North Korea's demolit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it appears th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ill continue to prioritize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strategy?  
 Jul 20, 2020

**COMMENTARY**  
**Will the Real Kim Yo Jong Stand Up?**  
 It's difficult to get reliabl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s leadership. This is especially true of Kim Jong Un's younger sister, Kim Yo Jong. Nonetheless, Washington should strive to learn as much as possible about someone who could become the leader of a nuclear-armed North Korea.  
 Jul 6, 2020

**COMMENTARY**  
**Is North Korea Prepared to End the Korean War?**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peace on the peninsula are no more likely to occur as the result of a peace agreement than has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occurred as the result of multiple denuclearization agreements. Ultimately, North Korean objectives matter, and real peace does not appear to be part of those objectives.  
 Jun 29, 2020

**Topics**

**Related**  
 Korean Peninsula

**Researcher Spotlight**

**Soo W. Kim**  
 Policy Analyst  
 Soo Kim is a policy analyst at the RAND Corporation. Her areas of specialization include North and South Korea, Southeast Asia, Russia, decisionmaking, propaganda,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homeland security. She served as an analyst in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and recently at...

**Diana Myers**  
 Assistant Policy Researcher, RAND  
 Diana Myers is an assistant policy researcher at RAND and a Ph.D. candidate at the Pardee RAND Graduate School.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trategic defense policy, primarily focusing on North Korea. Prior to RAND, she worked as an assistant policy researcher for...

Explore Our People

Sections | Search

**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Ranked #1 Think Tank in U.S. by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Subscribe | Sign In

Home > Korea Chair

CONNECT [Facebook] [Twitter] [RSS]

## Korea Chair

**KOREA CHAIR**

- ROK-U.S. Strategic Forum
- The Capital Cable
- CSIS in Seoul
- CSIS on the Japan-Korea Crisis
- Beyond Parallel
- U.S.-North Korea Relations
- Korea Chair Publications
- Senior Policy Group
-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Korea Going Forward
- U.S.-Korea NextGen Scholars Program
- U.S.-ROK Alliance
- Korea Chair Visiting Fellows
- Korea Chair Internship Program
- Korea Chair Staff
- Korean Unification
- Washington Research Consortium on Korea
- Korea Chair Project Archive

Find Additional Content

**The Capital Cable**

The CSIS Korea Chair presents the "The Capital Cable" series live on YouTube, a new breaking news analysis program. With a new episode every two weeks, The Capital Cable provides cutting edge expert analysis of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ow it impacts the U.S. and Asia. Hosted by former U.S. ambassador to Korea for President Barack Obama Mark Lippert and with regular participants Victor Cha and Sue Terry, The Capital Cable features special guests every episode from the US and Korean governments, experts, and opinion leaders. Archived episodes can be found here.

CSIS The Korea Chair Presents: The Capital Cable

THE CSIS KOREA CHAIR PRESENTS

**THE CAPITAL CABL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rending | Coronavirus | North Korea | USMCA | South China Sea | Election 2020

Member Login

Asia

## South Korea

**Back to Square One for Inter-Korean Relations**

Tensions rocketed on June 16 when North Korea demolished a liaison office that had stood as a symbol of peace for decades.

**The Pandemic Election and Moon's Leadership Choices**

Only performance, not ideology, will enable Moon's ruling party to secure a lasting legacy.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U.S.-South Korea Alliance Command Structure**

OPCON transition is a new beginning for combined defense.

**BROOKINGS**

AI | POLICY 2020 | CITIES & REGIONS | GLOBAL DEV | INTL AFFAIRS | U.S. ECONOMY | U.S. POLITICS & GOVT | MORE

Español | 中文

## SOUTH KOREA

**Trying to loosen the linchpin: China's approach to South Korea**

Jung H. Pak · July 2020

**PODCAST EPISODE**  
**Why has North Korea escalated tensions in the run-up to the Korean War anniversary?**  
 Jung H. Pak and Adrianna Pita · Thursday, June 25, 2020

**NORTH KOREA**  
**Ratcheting up in North-South Korea tensions to come**  
 Jung H. Pak · Wednesday, June 17, 2020

**NORTH KOREA**  
**Tensions rise after North Korea blows up liaison office**  
 Jung H. Pak · Tuesday, June 16, 2020

## 다음 세계의 질서를 고민하는 민관 국제전략 플랫폼이 필요

- 지구적 도전들을 관리하는 안정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외교전략가, 외교관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
- 한국의 외교안보 자원을 적극활용하고 국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전략 생태계를 형성해야
- 미중일러의 국가전략을 집중연구하는 **국제전략연구처** 설치
- 글로벌 싱크탱크의 한국 지소 유치와 연계한 **국제전략 플랫폼** 추진



**2019**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ONE HUNDRED SIXTEENTH CONGRESS  
FIRST SESSION

NOVEMBER 2019

Printed for the use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Available online at: <https://www.uscc.gov>

# 미·중 갈등 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김예경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일 시 2020. 7. 28. (화)

장 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입법조사처

# CONTENTS

- I. 미·중 갈등 현황과 중국의 입장
- II. 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





# 1. 미·중 갈등 현황과 중국의 입장



## 1. 미·중 갈등 현황

- 2018.1. 무역분쟁 계기 미·중 갈등 본격화
  - 영역 :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기술 영역 + 규범, 가치관, 이념
  - 주요 갈등 사안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경쟁
    - 남중국해 분쟁, 홍콩 및 중국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
    - INF 아시아 배치 문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 화웨이 제재 문제 등

## 1. 미·중 갈등 현황

- 미·중 갈등의 본질

- 미·중 갈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

- 미·중 간 국력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칙과 관계 설정 모색의 전환기

- 미·중 간 국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국의 글로벌 우위 사수

- 미·중 경쟁 특징

- △ 미·중 간 경제 및 기술경쟁 고조 △ 아·태지역 집중

- △ 안보와 경제 어젠다 경쟁 △ 리더십 경쟁 △ 이데올로기 경쟁 등



## 2.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 중국은 안정적인 국내외 환경 조성 추구
  - 2020년은 ‘13·5계획’ 마무리 해
  -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 목표 중 첫 번째 백 년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 완수의 해
  -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수립, 빈곤문제 해결 치중



## 2.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중국의 대외적 수사(rhetoric)
  -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永不称霸, 永不扩张)
  - 인류위생건강공동체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 재개 등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할 것임
  - 다만 국가주권, 국가안전, 영토완정, 국가통일 등 소위 ‘국가의 핵심이익’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시킬 수 없음(任何情况下都决不牺牲国家核心利益)

## 2.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 미·중 관계 관련 중국의 입장
  -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의 공동이행 위한 협력 강조
  - 미·중 양국 관계가 신냉전으로 발전하는 데 반대
  - 미·중 관계 단절(decoupling)은 국제사회에 이롭지 않으며,  
경제분야 협력 강조
  - 미·중 양국은 상대방 핵심이익 존중하면서 윈윈의 길 모색 필요



## 2.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 다른 한편 중국은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블록 구축 추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 목표, 한·중·일 FTA 추진
  - 미·중 관계 디커플링 대비
    - 2021.3. 제13기4차 전인대 ‘14.5계획’ 발표 예정
    - 내수진작 통해 대미 경제 의존도 줄이면서, 사실상 디커플링 수순
  - 미·중 수교 40주년 교훈, ‘합즉양리, 투즉구상(和则两利, 斗则具伤)’

## II. 한국의 대응과제



## 1. 미·중 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 한국의 양자택일 딜레마
  - 미 백악관 ‘대중국전략보고서(US Strategic Approach to China)’
    - 한국 포함 역내 동맹국에 대 중국 대항 안보지원 참여 촉구
  - 미국의 반(反) 중국 경제동맹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가입 제안
  - 한국 사회 내 이념, 가치관, 의리, 명분, 국익 논쟁 가열 가능

## 2. 대응과제 I: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성 정립

- 첫째, “한·미 동맹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중 우호관계 유지”
  - 한국 사회 내 동의 필요, 그러나 한국 언론 및 여론은 중국에 비우호적
  - 미·중 갈등 대응의 경직성 탈피
    - 미·중은 갈등과 경쟁 반복하면서도 ‘대화’ 지속
    - 미·중 간 무역분쟁 과정 복기 필요: 분쟁 격화 →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 포괄적 경제 대화(CED) 재개 합의 → 1단계 무역 합의
  - 따라서 미·중 갈등 프레임에 갇혀 선택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유연성 필요

## 2. 대응과제 I: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성 정립

- 둘째, 협력적 다자안보질서 구축 촉구
  - 미·중 갈등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불안정 속에서 주변국 피로도 발생
    - 미국과 중국 리더십에 대한 실망과 불신 초래
  -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당면과제 해결 시급
    - 미·중 갈등으로 북핵문제 주변화 위기
  - 갈등과 경쟁보다는 평화와 공존·공영의 가치 공감대 형성 필요
  - 한국은 강대국 세력 경쟁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다자안보질서 구축 비전 제시
    -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통해 주변국 지지 확보

### 3. 대응과제 II: 세부 추진방안 수립

- 첫째, 한국의 외교적 대응 역량 강화
  - 미·중 갈등 장기화 우려,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외교부 내 북미국(미국), 동북아국(중국) 등 지역국 개별 대책 수립
    - 부처별, 부처내 실국별 입장 조율 필요, 종합적 전략 및 현안 조정
  - 외교부 내 미·중 갈등 대응 전담기구로 ‘전략조정담당관’ 신설 예정
  - 좀 더 ‘전략·기획’ 기능이 순발력 있게 발휘될 수 있는 대응조직으로 역량 강화 필요
  - 또한 미디어 대응·경제·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3. 대응과제 II: 세부 추진방안 수립

- 둘째, 주변국의 미·중 갈등 대응 사례 수집 및 분석
  - 미·중에 대해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들은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추구
  -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양분화
    - UN 제44차 인권이사회(6.30), 홍콩보안법 관련 공동성명 발표
      - △ 지지: 쿠바 등 53개국(중국, 캄보디아, 중앙아, 콩고,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감비아, 라오스, 모로코 등)
      - △ 반대: 영국 등 27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
  - 주변국의 대응 동향 파악
    - 한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등 166개) 및 코트라(KOTRA) 등 활용



##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감도]

(단위: %)

순위	국가	비호감	호감	순위	국가	비호감	호감
1	일본	85	14	17	인도네시아	36	36
2	스웨덴	70	25	18	남아프리카	35	46
3	캐나다	67	27	19	폴란드	34	47
4	한국	63	34	20	리투아니아	33	45
5	프랑스	62	33	21	그리스	32	51
6	미국	60	26	22	브라질	27	51
7	네덜란드	58	36	23	이스라엘	25	66
8	이탈리아	57	37	24	케냐	25	58
9	체코	57	27	25	아르헨티나	24	47
10	호주	57	36	26	레바논	22	68
11	독일	56	34	27	멕시코	22	50
12	영국	55	38	28	불가리아	20	55
13	필리핀	54	42	29	러시아	18	71
14	스페인	53	39	30	나이지리아	17	70
15	슬로바키아	48	40	31	튀니지	16	63
16	헝가리	37	40	32	우크라이나	14	57

※ 주: '모르겠다'는 답변은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자료: Laura Silver, Kat Devlin, Christine Huang, "People around the globe are divided in their opinions of China", Pew Research Center, September 30, 2019. 재구성



국회입법조사처

### 3. 대응과제 II: 세부 추진방안 수립

- 셋째, 사안별 대응, 특히 우리 기업의 입장 파악

#### 〈화웨이 제품 보이콧 관련〉

- 미 화웨이 제품의 보안상 위험성 경고, 주변국 보이콧 요구
  - 한국 LGU+에 대해서도 화웨이 장비 거래 중단 촉구
- 우리 정부, “민간부문에서 장비 도입은 정책적으로 기업 자율적 결정 사안”
- LGU+, 전국 24만개 LTE 기지국 중 서울 수도권 9만6천개(30%) 화웨이 장비  
“화웨이 장비 교체는 천문학적 비용 손실 초래



### 3. 대응과제 II: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 수립

-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세계1위(30%), 5G 기술 기여도 세계1위, 5G 특허 보유 세계1위(미국 퀄컴 5위, 인텔 7위)
- 5G 경쟁의 승자가 약 12조 달러 세계시장 선점 가능
- 미·중 기술패권경쟁 대응 시 고려사항
  -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국가이익, 기업의 입장, 외교적 자율성”

[국가별 화웨이 채택 및 배제 현황] (2020.6. 기준)

채택	부분 채택, 기업별 결정, 미결정	배제
남아공, 러시아, 말레이시아, 바레인, 베트남, 벨기에, 북한, 이탈리아, 태국, 폴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체코, 프랑스, 한국	UAE, 덴마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감사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